

## 국립공원공단, 겨울철 산행 가이드 발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됨에 따라 아름다운 설경을 만끽하기 위한 탐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난자 구조 활동을 위해 겨울철 재난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겨울철에는 조난자 구조 시 신속성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조난사고가 집중되는 6개 공원에 전문 구조요원으로 구성된 8개 안전관리반 44명을 편성·배치해 운영한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탐방로 47개 구간에 대해서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래를 비치해두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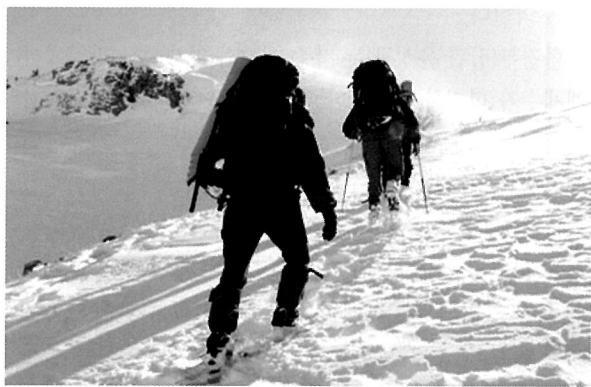
또한 공단은 겨울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탐방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라며 6가지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출발 전 일기예보와 현장여건을 살펴보고 조난 시 도움을 요청할 연락처를 확보한다. 산악지형에서는 통신이 불안정하므로 문자를 보낼 곳을 알아두면 좋다.

둘째, 자신의 체력상태를 고려해서 탐방로와 일정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단체산행은 개인별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셋째, 가급적 3명 이상이 함께 탐방하면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넷째, 방풍 점퍼와 모자 등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한 의류를 준비한다. 모자 하나만으로도 체온 유지에 큰 도



움이 된다.

다섯째, 겨울 산에는 눈이 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이젠, 스페츠, 방수등산화제를 준비해야 한다. 스페츠는 눈이 등산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방수등산화는 양말이 눈에 젖어 동상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여섯째, 간식과 비상식량을 준비한다. 산행 중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중간 중간 간식을 먹어야 하며, 비상식량으로 초콜릿이나 양갱, 소시지와 같은 칼로리가 높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비상식량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산행을 마칠 때까지 남겨두는 것이 비상식량으로서 의미가 있다.

공단 박보환 이사장은 최근 소백산국립공원 안전점검 현장을 돌리보고 “탐방객이 적은 겨울철에는 안전사고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눈과 추위 때문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직원들에게 사고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당부했다. ㉔